

팜파스 어린이 5

우씨! 욱하고 화나는 걸 어떡해!

아이의 분노 조절과 자기 관리,
사회성을 길러 주는
놀라운 감정 표현의 힘!

한현주 지음, 박진영 감수, 최해영 그림
팜파스 펴냄 | 136쪽 | 값 10,000원 | 초등 중학년

책소개

오늘도 나는 불끈 화가 난다!!
“화”란 껍질 속에 퐁퐁 숨어 있는
너의 진짜 마음을 보자!!

《우씨! 욱하고 화나는 걸 어떡해!!》는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분노, 화'로 표현해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위한 생각 동화책이다. 최근 들어, 초등생 어린이를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이의 분노조절과 감정표현에 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린이 친구들이 자신의 스트레스와 감정을 잘 모른 채 습관적으로 '욱'하는 분노만 내뿜기에 생기는 일이다. 어린이 친구들이 자기감정에 조금만 관심을 생긴다면 욱하고, 화나는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어린이 친구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변화에 관심을 갖게 도와준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폭발적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살살 바람 빼듯,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줄 것이다.

●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2. 《우씨, 육하고 화나는 걸 어떡해!》라는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나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험인가요? 그때의 감정을 적어 보세요.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줘?!
나를 자꾸 열 받게 한다구!
분노의 이어달리기
태풍, 모든 아이의 적이 되다
방글방글, 방글이 이모가 나타나다!
서먹한 친구들과 한 모듬이 되다니!
태풍이의 결심
아슬아슬,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다
울끈불끈, 화가 나! 참을 수 없어!
정말 화내도 된다고?
욱하고 화내던 태풍이가 달라졌다!

3. 이 책의 차례를 나란히 써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 차례를 살펴볼 때, 이 책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전개가 이루어 질까요? 줄거리를 예상해 간단하게 적어 보아요.

●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등장인물과 감정 이야기

다음은 《우씨, 육하과 화나는 걸 어떡해!》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주인공 태풍이와 주변 인물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책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살려서 답변 해보세요.

“태풍 군. 엄마의 심부름을 갔다 온 후 왜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졌나요? 그 방식이 태풍 군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었을까요? 만일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잘 전달이 될까요?”



“어머니, 태풍이가 심부름을 다녀왔을 때 어떤 기분으로 말했나요? 그 말을 듣고 태풍이가 비닐봉지를 던졌을 때의 마음은 어땠나요?”



“석현 군. 태풍이가 급식 시간에 반찬으로 오해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태풍이를 향한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방글이 이모님, 태풍이랑 놀러 갔을 때 갑자기 비가 왔잖아요?
우산도 없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던가요?”



“수진양. 태풍이랑 같은 모듬이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지요?
태풍이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떤가요?”



이야기 파악하기

“그만 좀 해라. 정태풍!”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선이였다. 민선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는 석현이와 빨개진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수진이를 보며 말을 이었다.

“수진이랑 석현이가 일부러 실수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민선의 말에 반 아이들은 너도나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 민선이 말이 맞아.”

“석현이랑 수진이도 속상할 텐데 왜 그러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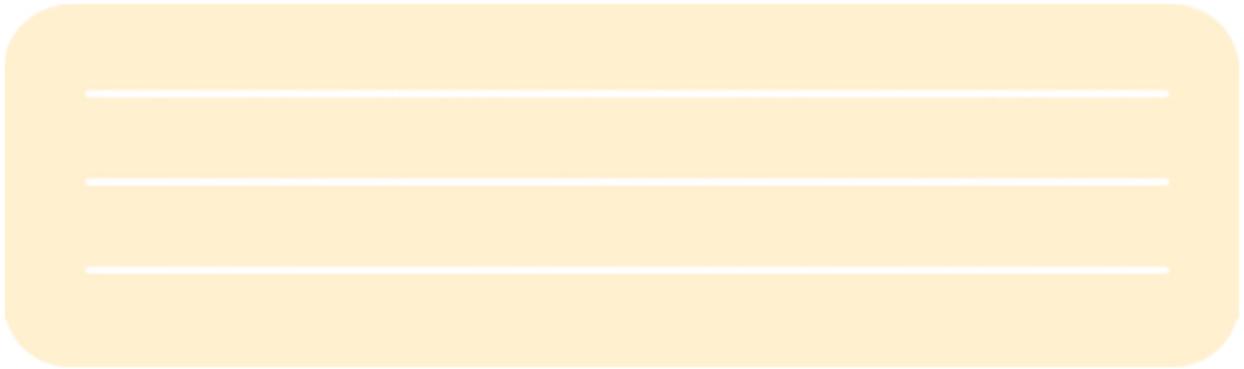
아이들의 말에 태풍이는 속에서 불이 확 났다. 자신은 발이 아픈 것도 꼭 참으며 열심히 뛰었는데……. 게다가 지고있는 상황에서 역전까지 시켰는데……. 어째서 반 아이들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실수를 한 아이들의 편을 드는걸까? 태풍이는 화가 나고 래고래 소리쳤다.

“우씨!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라!”

1. 태풍이가 역전을 시켰는데 아이들은 왜 태풍이의 편을 들지 않고 실수를 한 석현이와 수진이 편을 들었을까요?

2. 태풍이는 왜 ‘속에서 불이 확’ 났을까요? 태풍이는 친구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화라는 감정 속에 담긴 태풍이가 진짜 원하는 것 혹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3. 화가 날 때 태풍이처럼 '고래고래 소리친다'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에 담긴 태풍이의 진짜 마음이 잘 전달될까요?



'화'라는 감정을 다양하게 살펴보기

1.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최근에 화가 났던 적을 떠올리고 그때 느낀 '화'라는 감정을
모양과 색깔 등 형태를 그려보아요.



2. '화'라는 감정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화내는 것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1번의 경험과 혹은 전에 화를 냈던 경험 중 '화'가 준 이로운 점을 적어 보세요.

Blank writing area for question 2.

3.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누구나 화가 난답니다.

화는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그렇지만 화를 '폭발하듯이' 벌컥 내는 것은 좋지 않아요. 화를 해소하는 데도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화'가 날 때 화라는 감정을 슬기 롭게 내보이고,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 적어 보아요.

Blank writing area for question 3.

4. 이 장면에서 태풍이는 '욱하고 화날 때'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발을 쿵쿵 굴렀지요. 태풍이가 어떻게 화를 표현하면 좋을지 이 장면을 다시 그려 보아요.

